

## 한국 실�크로드 문화의 오아시스

### 강사 소개



#### 강사: 하정민 계명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듀크대학(Duke University)에서 불교 및 중국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실�크로드연구원 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인도에 기원을 둔 불교미술이 중국과 한국으로 전해지며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것이 주요 연구 목표이다. 최근에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확산된 불교 문화유산, 특히 미얀마의 불교 사원 벽화 및 석각 대장경, 베트남의 불교미술과 대장경 목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실�크로드 미술사전-서부: 중앙아시아 서투르키스탄(공저, 2021),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입상의 한국 불교조각사적 의의」(2023), 「베트남 북부 사원의 불교 목판 연구 시론」(2023), 「두 불교 고사(故事)의 특이한 결합—중국 남북조시대 후기 불교조각에 나타난 아육왕시토(阿育王施土)와 정광불수기(定光佛授記) 본생(本生) 장면」(2022) 등이 있다.

### 강의 요약

실�크로드는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교역로였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한반도에서의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서, 그리고 실�크로드의 핵심 지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지역은 또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중앙아시아 및 중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불교 문화의 중요한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아시아의 예술과 문화는 경주에 깊이 반영되었고, 불교미술과 문화도 크게 발전했다. 이 강연에서는 경주가 실�크로드 문화의 중심지로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탐구하며, 중앙아시아의 예술과 문화가 경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주가 불교와 불교미술의 중요한 센터로 번영하면서 어떠한 양상의 불교미술과 문화가 발전했는지를 조명하고, 불교의 전래와 함께 경주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받은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문화와 미술이 실�크로드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 및 경주가 동아시아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